

“난 킹덤 짠팬...좀비로라도 나오고 싶었죠”

‘킹덤’ 시리즈의 스페셜 에디션격 영화 ‘암살’ 이어 또다시 액션연기 “체력 부담, 열정으로 몸이 움직여” 김은희작가 “그녀가 액션의 모티브”

“좀비로라도 나오고 싶었다.” 배우 전지현의 표정은 밝았다. 최근 난데없이 겪은 ‘이혼설 해프닝’ 등 톱스타로서 때로 감내해야 하는 갖은 루머와 세간의 시선을 지나온 뒤 이전과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카메라 앞에 섰다. 나이가 그보다 스스로 “모든 이야기의 시작을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에 흥분했다”고 말하는 것처럼 다소 상기된 듯, 새로운 출사표를 던지는 자리에 대한 만족감이 넘쳐나는 듯 보였다. 전지현은 23일 넷플릭스가 전 세계 190개국에 동시 공개하는 ‘킹덤:아신전’으로 돌아온다. 그는 2017년 드라마 ‘푸른 바다의 전설’ 이후 4년 만에 복귀하는 연기 무대를 소개하며 20일 오전 온라인을 통해 취재진을 만났다. 또 다른 드라마 ‘지리산’을 촬영 중인 그는 번잡스런 세간의 눈길을 뒤로하고 ‘킹덤:아신전’을 출발점 삼고 있다. ‘킹덤:아신전’은 2019년과 지난해 각각 선보여 화제를 모은 ‘킹덤’ 시즌1·2편의 사건에 앞서 벌어진 일을 그리는 프리퀄이자 스페셜 에디션이다. 조선의 백성들에게 다가선 역병의 비극을 낳은,

“죽은 자를 되살리는 풀” 생사초의 기원에 얽힌 이야기이다. 북방의 압록강 국경지대를 배경으로 전지현은 생사초의 비밀을 쥐고 있는 인물이다. 활과 화살로 역병에 맞서는 그는 영화 ‘암살’ 등에 이어 다시 한번 액션 연기를 선보인다. 정작 그는 “매일 침대에 눕고 싶다. 꼼짝하기 싫다. 현장나가는 것 자체가 너무 큰 체력을 요구한다”면서 웃었다. 그럼에도 전지현은 꾸준히 다져온 체력 덕분에 현장을 견딜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체력을 관리하는 게 쉽지 않지만, 작품에 대한 열정으로 몸이 움직인다”고 밝혔다. “사실 배우가 몸을 잘 움직이고 관리하는 게 큰 자랑은 아니다. 60·70대에도 못 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그때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배우의 기본이다”는 말에서는 프로페셔널로서 자부심이 풍겨났다. 그런 그를 바라보며 ‘킹덤:아신전’의 김은희 작가는 “스펙트럼이 넓은 배우다”면서 “로맨틱 코미디의 여왕”으로도 불리지만, 영화 ‘암살’과 ‘베를린’에서 어둠이나 아픔을 간직한 캐릭터 연기가 멋있었다”면서 “아름 속에서 겉모습은 강하고 위험한 무사 같은 인물들, 그를 연두에 두고 썼다”고 밝혔다. 김은희 작가의 덕담에 전지현은 “김 작가와 ‘킹덤’ 시리즈의 팬이어서 좀비로라도 나오고 싶었다”고 화답했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 배우 전지현이 20일 온라인으로 열린 넷플릭스 ‘킹덤:아신전’ 제작발표회 무대에 올라 포즈를 취하고 있다. 그는 “작품에 대한 열정으로 강도 높은 액션을 소화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 넷플릭스

‘골때녀’가 몰고온 여자축구 열풍

(골 때리는 그녀들)

각본없는 드라마...시청률 7% 넘겨 박선영·최여진 등 벌써 스타탄생 여성 축구클럽 가입률 400% 늘어

“축구공 한 번 안 차봤는데 배울 수 있나요?”

SBS 예능프로그램 ‘골 때리는 그녀들’ (골때녀) 방송 한 달째, 여성 출연자들이 각기 팀을 이뤄 축구 대결을 펼치며 웃음과 감동을 자아내고 있다. 앞서 농구, 축구, 골프 등 다양한 스포츠 종목에 예능프로그램이 다뤄왔지만, 여자축구는 ‘골때녀’가 처음이다. 여자축구가 아직 대중화하지 않았다는 일각의 우려에도 프로그램은 최근 7%대(닐슨코리아) 시청률을 훌쩍 넘기면서 화제물이 중이다. OTT(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웹이브 주간 예

능 차트에서도 6위에 오를 만큼 인기다.

●여자축구 관심 ↑...“방송 파급력 실감”

인기는 여자축구에 대한 대중적 관심까지 끌어올리고 있다. 온라인상에서는 여자축구를 배울 수 있는 곳을 문의하는 글부터 강의 후기 등이 심심치 않게 공유되고 있다. 20일 서울 잠실·경기 일산 등에 지점을 둔 축구교육 전문회사 제이앤스스포츠의 정병훈 대표는 “한 달 새 여성 초보자들의 교습 문의가 폭발적으로 늘었다”면서 “전 지점의 수강생 가입률이 이달에만 400%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골때녀’를 보고 축구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면서 직접 연습장을 찾는 여성도 부쩍 늘었다. 정 대표는 “방송의 파급력을 실감했다”며 혀를 내둘렀다. “축구화를 처음 신어본” 초보들이 축구



SBS 예능프로그램 ‘골 때리는 그녀들’에 참가한 FC 엑서시스터 팀, 감독인 이영표 전 국가대표·배우 정혜인·지아수·장진화·이미도·김재채·최여진(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에 점차 빠져들며 성장해가는 과정이 시청자의 마음을 뒤흔들면서 여자축구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낮췄다는 평가도 많다. 황선홍·이천수·최진철 등 전 국가대표 선수들이 각 팀 감독으로 나선 이유이기도 하다. 이천수 감독은 최근 스포츠동아와 나눈 인터뷰에서 “‘골때녀’를 통해 여성들도 즐겁게 축구를 즐길 수 있다는 인식의 변

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확신이 들어 흔쾌히 참여했다”고 밝혔다.

●“불청 호나우지뉴에 진라탄까지”

지열한 승부를 통해 빚어내는 ‘각본 없는 드라마’로 새삼 시선을 모으는 스타들도 탄생했다. ‘불타는 청춘’ 출연자들이 모인 FC불나방의 박선영은 브라질 축구스타 호나우지뉴의 이름을 따서 ‘불청 호나우지뉴’로 불리고 있다. 감독들도 “에이스”로 꼽을 만큼 실력이 좋은 뿐 아니라 공을 끝까지 지켜내려는 집념도 갖춰 팬들을 모았다. 이탈리아 프로축구 AC밀란 소속 “즐라탄 이브라히모비치처럼 스트라이커가 되겠다”는 연기자 최여진에게는 “진라탄”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김민경과 오나미 등 개그우먼들이 뭉친 ‘개벤저스’는 최근 토너먼트에서 탈락해 아쉬움을 남겼다. 많은 시청자가 “멤버들의 축구에 대한 진심이 감동했다”며 응원하면서 14일 방송분은 트위터의 실시간 인기 트렌드 검색어 1위까지 올랐다. 유지혜 기자

“방송 출연자가 우선접종 대상인가”

최근 확진자 많이 나온 TV조선 방통위·문체부에 우선접종 요청 게시판엔 “새치기” 비난글 쇄도

TV조선 ‘뽕송아학당’ 제작진이 정부 당국에 ‘방송 출연자 감염병 우선 예방 접종’을 요청하면서 이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뽕송아학당’ 제작진은 20일 오후 현재까지 트리트 가수 장민호 등 일부 고정 출연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에 ‘방

송 출연자들에 대한 우선적인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요청했다. 앞서 이 프로그램에 출연한 스포츠스타 박태환과 모태환 등이 감염되면서 장민호, 영탁, 김희재 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TV조선은 이에 ‘뽕송아학당’ 촬영을 중단하고 21일 결방키로 했다.

‘뽕송아학당’ 제작진은 “국민의 시청권익 보장을 위해 중단 없이 방송 제작에 임하고 있는 관련 종사자들의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요청”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적지 않은 시청자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프로그램 게시판에는 “재난방송 등 공공의 목적도 아닌 방송 출연



TV조선 예능프로그램 ‘뽕송아학당’의 한 장면. 사진제공 | TV조선

자가 우선 접종 대상이 될 수 있는냐”는 글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시청자는 코로나19 백신 물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새치기”

라는 격양된 목소리까지 내놨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관련 타당성을 검토 중이지만 해당 요청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정덕현 대중문화 평론가는 “많은 인원이 일정한 공간에 모여 프로그램을 제작해야 하는 특성상 감염 고위험군 관리 차원에서 방송 관련자들을 ‘특별직군’으로 볼 수 있겠지만, 다양한 방식의 소통을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한 대중적 공감을 얻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방송업계 방역 관리에 대한 대책을 내놨다. ▲방송제작 단계별 방역 가이드라인 준수 및 촬영현장 집중 점검 ▲촬영 전 자가 검사키트 및 주기적 유전자증폭(PCR) 검사 권고 등 내용이 담겼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연예뉴스 HOT 5

유해진, ‘이건희컬렉션 특별전’ 재능 기부



유해진

배우 유해진이 국립현대미술관 ‘MMCA 이건희컬렉션 특별전: 한국미술명작’ 전시회 오디오 가이드에 재능 기부로 참여한다. 20일 소속사 키이스트는 “유해진은 미술 애호가로서 2019년 국립현대미술관에 전시된 ‘박찬경: 모임’ 전시에도 오디오 가이드로 참여한 바 있다”며 “인연을 이어가면서 대중에게 현대미술에 대한 문턱을 낮추는 데 일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건희컬렉션’은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생전 수집했다가 국가에 기증한 한국 근현대미술 대표작들을 처음 공개하는 전시다. 21일부터 2022년 3월13일까지 열린다.

김호중-공사업체 관계자들 한밤 시비



김호중

군 대체복무 중인 트로트가수 김호중이 공사업체 관계자들과 시비가 붙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20일 서울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밤 10시27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 앞에서 김호중이 남성 2명과 서로 밀치는 등 시비가 붙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남성들은 김호중의 발라 유치권을 주장하기 위해 찾아온 공사업체 관계자들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이들을 상대로 폭행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는 “오해로 인한 말싸움이었을 뿐”이라며 “주민들의 신고로 경찰들이 출동해 양측이 화해했다”고 해명했다.

가수 하니-배우 윤정희 등 20일 확진 판정



하니

윤정희

가수 겸 연기자 하니(안희연), 배우 윤정희 등이 20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하니의 소속사 씨브라임아티스트에 이 전시는 “현장 스태프의 코로나19 확진 이후 선제 검사를 진행해 이날 오전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최근 촬영 중인 JTBC 새 드라마 ‘아이들의’ 촬영도 전면 취소됐다. 하니와 같은 소속사인 윤정희도 앞서 관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가 재검사를 통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음주운전 혐의 배우 박중훈 벌금 700만원



박중훈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배우 박중훈이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은 지난날 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박중훈에게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인 약식명령을 내렸다. 박중훈은 3월26일 오후 9시30분께 술에 취한 채 강남구 한아파트 입구부터 지하주차장까지 약 100m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면허 취소 기준(0.08%)이 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왔지만 접촉 사고를 내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중훈은 200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부산국제단편영화제, 스페인·캐나다서도 인증

부산국제단편영화제가 국내 영화제 중 처음으로 ‘스페인 고야상’과 ‘캐나다 스크린 어워드’의 공식 인증 영화제로 선정됐다. 20일 영화제 조직위원회는 이 같이 밝히면서 “각국 영화기관 및 대사관과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노력해온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고야상은 스페인 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가 주관하며, 스페인 및 전 세계 영화인들에게 미국의 아카데미상과 동등한 수준의 영화상으로 간주된다. ‘캐나다 스크린 어워드’는 캐나다영화 텔레비전아카데미가 주관한다. 두 인증을 받은 영화제로는 칸 국제영화제, 선댄스영화제 등이 있다.